


| | | | | | |
|--|-------|--|-------------------------|--|--|
|  인천광역시 | | 보 도 자 료 | |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 |
| | | 배포일자 | 2024년 6월 27일(목) 총 2매 | | |
| 담당 부서 | 인구가족과 | 담 당 자 | • 인구정책팀장 • 담당자 | 최정희 ☎440-4931 전지현 ☎440-4932 |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저출생 정책선도하는 인천시, 지역특색 반영한 인구교육 운영
 - 복지부·시·시교육청·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인천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업무협약 체결 -
 - 시, 시민·단체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 인정교과서 승인해 정규 교과목 운영 -

인천광역시는 6월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보건복지부, 인천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과 ‘인천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업무협약’ (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소림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이사가 참석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구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협약기관들은 정부·지자체·교육청·인구교육수행기관이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지역의 특색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가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3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인구교육 분야 도서가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의 인정교과서로 최종 승인받아 현재 2개 학교에서 수업이 이뤄지면서, 인천은 물론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정규 교과목으로 인구교육을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학교 교육과 함께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인천의 특성에 맞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인천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특색형 인구교육 우수 모델 개발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조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한다는 것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실질적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